광주시립미술관, 토리노서 '남도 한국화' 뽐낸다

9월 7일까지 이탈리아 오리엔탈미술관서 '문화도시 광주전' 개최
전통-현대 공존 '남도한국화' 조망… 5·18 작품·아카이브 전시도
시립미술관-오리엔탈미술관 작년 협약… 소장품 대여·작가 교류

광주시립미술관이 이탈리아의 문화도시 토리노에서 광주·전남 예술의 정수를 선보인다. 광주광역시립미술관은 오는 9월7일까지 이탈리아 토리노시 오리엔탈미술관(Museo d'Arte Orientale)에서 '2025 문화도시 광주전-번안된 풍경'을 개최한다.

광주시립미술관과 토리노 오리엔탈미술관(토리노박물관재단 소속)이 협업을 통해 한국 미술사의 한 단면을 조망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두 기관은 앞서 지난해 4월15일 협약을 맺어 소장품 상호 대여, 작가·연구자·기획자 레지던시 교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국제전시가 열리는 토리노는 관광과 문화 사업을 집중 추진하고 있는 이탈리아의 문화도시로, 광주 역시 예향으로 불리는 한국의 대표 문화도시다. 특히 광주와 우호 교류를 이어온 토리노에 위치한 동양미술 전문기관인 오리엔탈미술관에서 광주·전남지역의 전통과 역사를 조명하는 전시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전시는 한국 미술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남종화 소장품과 함께 동시대 한국화까지 폭넓게 소개한다. 먼저 허련, 허백련, 허행면의 작품을 통해 고전적인 한국화의 미감을 조명한다. 이어 이선복, 허달용, 홍성민의 작품을 통해 전통과 현대적 조형미가 다양하게 전개되는 광주·전남의 동시대 한국화를 선보인다.

또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인 5·18민주화운동을 주제로 한 작품을 통해 광주·전남 한국화의 다양성과 시대정신에 따른 예술적 탐구를 보여준다. 아울러 5·18민주화운동기록관과 5·18기념재단의 협조로 제공된 아카이브 자료를 통해 그날의 숨결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광주시립미술관은 지난 2012년부터 해외 기관에서 지역 작가를 소개하는 전시를 시작했다. 2015년부터는 '문화도시 광주전'으로 추진해 예향 광주의 우수한 미술과 문화를 국제적으로 소개하며, 지역 작가들의 해외 진출 역량을 키워왔다.

광주시립미술관은 그동안 중국 베이징·광저우, 영국 런던, 독일 뮌헨, 일본 요코하마, 프랑스 파리, 미국 샌안토니오 등에서 '문화도시 광주전'을 개최했다. 지난해에는 일본 오키나와에서 전시를 여는 등 문화도시 광주전을 통해 각국 문화예술 기관들과의 협력망을 꾸준히 확장하고 있다.

윤익 광주시립미술관장은 "이번 전시는 전통 수묵화의 아름다움은 물론 현대적 조형미로 발전한 동시대 작품까지 아우르며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남도 한국화의 뛰어남을 조망할 수 있는 자리다"며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인 5·18 관련 작품과 아카이브를 함께 전시함으로써 민주·인권·평화 도시인 광주를 주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명수 기자

고흥군, 가정의 달 맞아 온 가족이 즐기는 버스킹 공연

오는 30일 저녁 8시, 고흥군청 앞 군민광장에서 무대 마련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오는 5월 30일 저녁 8시, 고흥군청 앞 군민광장에서 '2025 고흥읍 드론쇼 버스킹 공연'의 두 번째 무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군민과 하나되는 별밤 버스킹'을 주제로 한 이번 공연은, 4월부터 10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저녁 8시에 열리는 문화가 있는 날에 맞춰 기획됐다. 군민과 관광객에게 다양한 문화적 즐거움을 제공하고,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특히, 이번 공연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가족 단위 관람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대로 구성됐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매직 버블쇼'와 기성세대에게 향수를 불러일으킬 1980~90년대 포크송과 팝송 무대로 기타리스트 주권기의 감성적인 라이브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가정의 달을 맞아 기획된 이번 공연이 군민 모두에게 가족의 소중함과 추억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새로운 콘텐츠를 꾸준히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오는 6월과 8월, 고흥문화회관 김연수실에서 연극 〈잠깐만〉, 전통극 〈향악잡영오수:최치원놀이(鄕樂雜詠五受)〉를 상연할 계획이다.

고흥/박도일 기자

"광주에서 반려견과 함께 미술전시 즐겨요"

광주시·ACC, 6월 5일 문화창조원서 반려견 동반 특별행사
8월 5·14일 '반려동물 동반 문화나들이 특별주간' 사전 행사

광주에서 반려견과 함께 미술 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특별한 행사가 열린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오는 6월5일 ACC 문화창조원 복합전시관에서 '반려동물 동반 문화나들이 특별행사'를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광주시가 오는 8월 진행하는 '반려동물 동반 문화나들이 특별주간'에 앞선 사전행사로 반려견과 함께 다채로운 전시를 즐길 수 있도록 꾸며졌다.

이날 반려견과 함께 관람할 수 있는 전시관은 ACC 문화창조원 내 복합전시관 2·5·6관 3곳이다.

2관에서는 트로트와 뽕짝 리듬의 아시아 대중음악을 매개로 도시소리 풍경을 둘러보는 매체예술 전시인 '애호가 편지'를, 5관에서는 미디어 아티스트 이이남 작가를 조명하는 지역작가 초대전 '이이남의 산수극장' 전시를 볼 수 있다. 6관에서는 무장애, 장애예술, 참여예술을 연구해온 국내외 작가 5인(팀)의 관객 참여형 전시인 '우리의 몸에는 타인이 깃든다' 기획전시를 관람할 수 있다. 이번 전시 관람은 일부 견종(대형견, 맹견, 공격성이나 문제행동 있는 개)을 제외한 반려견을 동반한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단, 전시관 내 질서유지를 위해 반려견은 개 유모차 또는 이동 가방을 이용해야 한다.

전시관람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관람료는 모두 무료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금은 반려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시대"라며 "반려가족에 대한 새로운 문화체험의 기회 제공으로 반려동물 친화도시 광주의 이미지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오는 8월 5일부터 14일까지(휴관일 제외 9일간) 4개 전시시설(시립미술관 본관, 시립미술관 하정웅미술관,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 큐브미술관)에서 반려동물 동반 전시 관람을 할 수 있는 '반려동물 문화나들이 특별주간' 본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전혜정 기자

(재)담양문화재단, 음악과 영화가 함께하는 시네콘서트 개최

재즈, 금관, 현악으로 감상하는 영화 음악 콘서트

(재)담양군문화재단(이사장 정철원, 이하 재단)은 오는 6월 13일과 14일 담빛예술창고에서 영화와 음악이 결합된 특별공연 '시네콘서트'를 개최한다.

'시네콘서트'는 대형 스크린으로 영화를 상영하고 전문 연주자들이 영화음악을 연주하는 형식의 공연으로, 영상의 감성과 연주의 현장감이 어우러져 관객에게 새로운 예술적 경험을 선사한다.

6월 13일에는 고전 명작 〈오즈의 마법사〉가 상영되며, 한국대중음악상 재즈보컬부문 수상자인 남예지가 이끄는 '남예지 Old Songs, 틈'이 영화 OST '오버 더 레인보우'와 4집 앨범에 수록된 '가시리', '꽃타령' 등 한국적 정서가 담긴 곡들을 재즈로 새롭게 들려준다. 익숙한 스토리에 감각적인 재해석이 더해져 세대를 아우르는 무대가 기대된다.

6월 14일에는 CGV 단독 개봉 이후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음악 영화 〈하와이연가〉가 상영된다. 이 작품은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 바이올리니스트 김지연, 세계적 뮤지션 Keola Beamer, 소프라노 조수미, 배우 예수정 등이 참여해,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유구한 역사를 아름다운 음악과 영상으로 풀어낸 작품으로, 영화 상영 후에는 이진영 감독과의 대화도 마련되어 관객과의 깊이 있는 소통이 기대된다.

같은 날 '코리안아츠 금관앙상블'은 디즈니와 지브리 애니메이션 등 인기 영화 OST를 11인조 금관악기 구성으로 선보인다. 이어 '코리아챔버앙상블'은 담양군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담빛스트링앙상블과 협연해 영화음악을 현악 중심의 합주로 들려준다. 전문 연주자와 지역 청소년이 함께 무대를 완성한다는 점이 주목된다.

부대행사도 마련된다. 양일 오후 3시부터 담빛음악당 일대에서는 먹거리 부스,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즐길 거리가 운영돼 가족 단위 관람객에게 풍성한 하루를 선사한다.

이번 공연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사전예약은 6월 10일까지 재단 누리집과 공식 SNS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사전예약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돗자리 대여, 수제맥주 등의 편의물품을 제공한다.

재단 관계자는 "이번 공연을 통해 일상 속에서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청소년과 지역 예술인의 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지역 문화의 자생력 강화와 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며, "공연을 통해 담양의 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하고, 관광 콘텐츠로서의 확장 가능성도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담양/이종옥 기자

광전매일신문 기사제보·광고문의 TEL 062-525-9775